

##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완료…선출 프로세스 시작

10월 4일 구성원 단체별 총추위 위원 35명 구성 완료

직원·학생 간 투표비율 5:5(?) 4:6(?) 아직 미궁

총동문회 “동문 몫 총추위 위원 왜 총장 직무대행이 임명하나”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제 16대 총장을 본격적으로 뽑기 위한 이른바 ‘총장 선출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 첫 단추인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이 지난 4일 완료됐다. 총추위 위원은 구성원 단체별로 각각 교수 15인, 직원 5인, 학생 5인, 동문 5인, 법인 5인으로 구성됐다. 대학본부는 총추위 구성과 함께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 상태다.

교수의회는 서울·의학·국제지회 각 5인씩 총추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전체 대의원 회의와 각 지회별 대의원 회의에 총추위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하여 토론 후 투표에 부쳐 최종 결정한 결과다. 직원 층은 임원진 중 제 1노조 3인, 제 2노조 1인, 의료원 노조 1인 씩을 총추위 위원으로 선정했다. 학생 총추위 위원은 서울캠퍼스(서울캠) 종학생회(총학) 2인, 국제캠퍼스(국제캠) 종학 2인, 국제캠 일반대학원 학생 1인으로 구성됐다. 서울캠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각 학생회장을 포함한 1인으로 총추위 구성은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인 또한 지난 4일 내부 회의를 거쳐 5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추위 동문 위원은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의 추천으로 구성이 완료됐다. 구성원 단체별 총추위 위원 구성은 완료된 상태지만 공식적인 위촉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기존 마감일인 4일보다 조금 미뤄진 7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추위는 지난 2일 대학본부가 발표

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에 최종 3인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까지 존속된다. 총추위는 예비후보 자격 요건을 검토해 예비후보군을 확정, 오는 24일에는 구성원 단체에 최종 후보 3인 추천을 의뢰할 계획이다. 총추위의 예비 후보자 자격 검토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총추위가 각 구성원 단체별로 선정한 후보자 3인(교수 단체 추천자 2인, 학생·직원 단체 추천자 1인)을 30일까지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 사회가 그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총추위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활용해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예비 후보 정보를 제공하고 총장후보위원회를 주관하는 등의 일을 겸한다.

총추위 구성은 차질 없이 완료됐지만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아직도 존재한다. 발표된 지침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불안감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침에는 최종 후보 3인을 추천하기 위한 구성원 투표 방식이나 지원자가 3인 이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수와 학생·직원이 같은 후보를 추천할 경우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후보 추천 행정지원단(지원단) 층은 “세부 문제는 구성된 총추위가 지침 내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총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행정 업무와 총추위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 내 기구이며 지난달 30일에 출범했다. 본

###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후보 추천 일정〉

총장후보 추천 행정지원단 구성	9월 17일 (화) ~ 9월 23일 (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9월 23일 (월) ~ 10월 4일 (금)
후보자 공모	9월 25일 (수) ~ 10월 8일 (화)
후보자 추천	10월 7일 (월) ~ 10월 9일 (수)
후보자 자격 검토	10월 7일 (월) ~ 10월 18일 (금)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주관 총장후보토론회	10월 21일 (월) ~ 10월 23일 (수)
구성원 단체별 추천후보 3인 (교수 2인/학생·직원 1인) 선정	10월 24일 (목) ~ 10월 28일 (월)
최종 후보 추천(이사회 보고)	10월 29일 (화) ~ 10월 30일 (수)

###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명단〉

교수		
서울지회	국제지회	의학지회
강재식 의장	이창수 의장	김우식 의장
정창현 사무총장	이찬희 사무차장	조세형 사무차장
송상호 총장선출특위위원장	정하용 교무위원장	주성숙 대의원
김봉석 교무위원장	홍희기 대의원	이종수 교수
하상수 대의원	김용호 교수	이지아 교수

직원	학생
한상 제 1노조 위원장	김수혁 서울캠퍸스 총학생회장
임경열 제 1노조 수석부회장	박윤찬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민석 제 1노조 사무국장	전완주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박경규 민주노총 경희학원 지부장	이지은 국제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손기경 민주노총 경희의료원 지부장	박삼일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학생

\* 법인 위원 5인과 동문 위원 5인은 선발됐지만 공개되지 않음.

격적인 업무는 총추위 구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되며 총장 선출에 관한 행정 업무가 모두 지원단으로 이관된 상태이다.

총장선출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는 직원과 학생 간 투표반영 비율 합의가 필수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원과 학생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애초 직원은 5:5의 투표반영 비율을 제안 했으나 학생은 직원에 비해 학생 수가

현저히 많다는 것을 이유로 6:4를 요구 했다. 이에 직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 측 모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제 1노조 한상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2안을 타결한 이유는 1안에서 투표반영 비율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2안에서도 학생과 직원 간 투표반영 비율 합의가 자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도 “투표반영 비율을 제외한 것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던 1안과 달리 2안은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총장 선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민주적 총장 선출이라는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캠 총학 김 회장은 “직원과 학생은 수직으로 약 10배 정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5:5의 비율로 양측이 직선제를 시행한다면 직원과 학생의 1표는 다른 무게를 갖게 될 수 있다”며 “그런 이유로 학생은 6:4의 투표비율을 제시한 것이고 간선제 투표방식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의 투표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며 한 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총동문회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구성원의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제3차 이사회 결의 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현재 총동문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3차 이사회 의결을 비롯한 총장선출 관련 계획, 규정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총동문회 권오형 회장은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총장선출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총추위 동문 위원을 직무대행이 선정하는 것은 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총동문회도 무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단에 따르면 10월 4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서류를 갖춰 지원한 후보는 1인이며 총장 후보 공모 마감은 오는 8일이다. 총추위에 의한 후보자 추천은 오는 7일부터 3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 실시 예정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대상에는 우리학교도 포함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조국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논란 등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자 교육부가 입시문제 개선을 위해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및 특목 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 조사 대상 대학에는 우리학교를 비롯해 건국대, 광운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흥의대가 포함됐다. 우리학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 기준 총 모집 인원이 5,424명으로 실태조사 대상 대학 중 최고로 많다. 지난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신입생 선발 인원 또한 2,685명으로 실태조사 대상 대학 13개교 중 최대 규모를 보였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는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이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은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해 10월 말까지 입시자료를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 실태 조사



경희대·외대·시립대 세 학교가 꽃피운  
(삼동제 TROIKA)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동대문구 세 학교의 교류 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삼동제 TROIKA)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연, 학술,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가 이뤄졌다. 사진은 우리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치른 체육 분야 테니스 경기이다.

(사진 = 고황 제공,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